

# 오월 현장 ‘전일빌딩245’ 민주주의 산 교육장 됐다

### 리모델링 후 지난해 5월 개관...6만112명 다녀가 ‘오월길’ 코스 연계·전시회 등 전국화·세계화 박차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이자 40년 광주 시민의 애환과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일빌딩245’ (이하 전일빌딩)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었다.

52개월 동안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해 5월 개관한 전일빌딩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5·18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았다.

올해도 전일빌딩에서는 5·18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끄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관 이후 전일빌딩을 방문한 누적 방문객은 6만 112명이었다. 하루평균 방문객은 343명 꼴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2차례에 걸쳐 2개월 가량(7월2일~8월2일, 8월23일~9월20일)이나 휴관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단체 관람객 제한 및 대관 취소 등으로 적극적인 관람객 유치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빌딩을 향한 방문객의 발걸음은 꾸준했다.

특히 개관식이 있었던 5월에는 1만7846명이 전일빌딩을 다녀갔고, 6월에도 1만 2434명이 방문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외출이 많지 않았음에도 10·11월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전일빌딩을 찾아 꾸준한 인기를 보여줬다.

광주시는 올해 전일빌딩을 광주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5·18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5·18사적지 ‘28호’인 전일빌딩을 ‘5·18기념재단’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인 ‘오월길’에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기존 오월길 코스인 ‘오월인권길’, ‘오월민중길’, ‘오월의향길’ 등의 코스에 ‘전일빌딩245’를 추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오월길 코스를 돌다 전일빌딩에 도착하면 주먹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일빌딩 3층 시민갤러리에서는 전일빌딩의 상징성에 걸맞은 인권·평화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전시하는 ‘오월’ 행사가 기획된다.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전시 주제를 선정, 시립미술관 소장품 또는 광주민족미술인협회 회원 작품 중에서 주제에 맞는 작품을 골라 전시회가를 가질 계획이다.

열악한 주차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비 지원도 시작한다. 전일빌딩 내에는 실제 45대만이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는 방문객이 지정된 인근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시간의 주차비를 지원한다.

광주시 담당자는 “5·18의 상징인 전일빌딩에서 5월 관계기관과 협의해 민주화교육을 위한 장을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단체관람객 유치 및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일빌딩 9층과 10층 사이를 허물어 조성한 전시공간인 ‘19800518’에 헬기 축소 모형 등이 전시돼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국민 42.8% “사교육 심해졌다”

###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 ‘교육 당국 코로나 대응 적절’ 44.5%

우리 국민 다수는 여전히 사교육이 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 3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공개한 2020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이 받는 사교육이 최근 2~3년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42.8%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5.5% 뿐이었으며, ‘변화없다’는 응답이 51.8%였다.

1999년부터 KEDI가 매년 실시하는 교육여론조사는 지난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이 심해졌다는 응답은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이 심해졌다는 응답은 2017년 24.8%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교육정책 중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현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중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29.6%)였다. 지난해까지 1위였던 ‘등록금 부담 경감’이 22.5%로 2위였다.

이처럼 대입 공정성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낮은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교육 신뢰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 (36.1%)라는 응답이 ‘잘 하고 있다’ (17.1%)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44.5%가 ‘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하지 않다’ (13.3%)보다 많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역할로는 ‘학생의 배움 및 학습 유지’ (3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

## 겨울비 뒤 추위

### 광주·전남 오늘 5~30mm

### 내일부터 영하5도까지 떨어져

광주·전남지역은 1일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점차 내려가 추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31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 시작된 비가 1일 새벽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이날 비는 새벽과 아침 사이 집중되겠다”고 전망했다.

예상강수량은 광주·전남 5~30mm이며, 비는 정오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전남 남해안 지역 등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한편,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1일 아침 기온은 4~9도 분포, 낮 기온은 10~13도로 따뜻하겠으나 1일 밤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2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으로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변하면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1100명 ‘뚝’

### 광주, 고교 배정 신입생 1만955명

### 명진고·상일여고 정원 미달

올해 고등학교에 배정된 광주 지역 중학생이 지난해 대비 11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9일 2021학년도 광주 후기 평준화 ‘일반고’ (자율형공립고·과학교점고 포함)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지역 49개 후기 평준화 일반고에 배정되는 신입생 인원은 남학생 5515명, 여학생 5440명 등 총 1만 955명이다. 정원내 1만803명, 정원 외(고입특례·국가유공자·특수교육) 152명이다. 49개 고교 중 명진고(106명)와 상일여고(37명)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원자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1만 2095명의 중학생이 후기 평준화 일반고에 배정됐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신입생은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예비소집 일정 등을 확인 뒤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며, 오는 5일까지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소집을 비대면 또는 소규모 단위로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 입학 등록과 필요서류 제출 방법 등도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과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신입생은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재학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 높은 고입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진도 벗어나서...시험지 유출되서...

## 광주 중·고교 재시험 다반사

### 학벌없는 사회 “적극 대응해야”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매년 100여건의 재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은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재시험은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중학교 187건, 고등학교 481건의 재시험이 진행됐다. 재시험 사유는 문항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출제 오류, 편집 오류 등 단순한 실수에서부터 특정 반에 가르

치지 않은 범위가 시험문제로 출제된 경우나 시험지가 유출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가 재시험 여부를 교육청에 보고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특히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파일 유출 사건과 같은 중대 사안조차 보고되지 않고 감독되지 않는다면 성적을 둘러싼 의구심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통해 재시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 사안의 경우 교과협의회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장학금 1억 모으기 동참해주세요

### 광주 남구 ‘개미 후원자’ 발굴 나서

광주시 남구는 지난 31일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억원 조성을 목표로 장학금 모금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 장학금 1억원으로, 지난해 장학금 1억 5000만원 이상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구는 매월 5000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통해 개미 후원자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남구는 개미 후원자 발굴에 남구청 공무원들의 개인 명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명함 뒷면을 남구청 후원 안내 내용으로 채워 명함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미 후원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100만원 이상의 통 큰 후원자를 발굴

하기 위한 기부 릴레이 운동도 전개된다.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선행을 남구청 홈페이지와 소식지,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려 기업체 및 목장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남구청장학회에 따뜻한 후원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다.

한 중년 남성은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매월 40만원씩을 후원하고 있으며, 무진세마을금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1000만원을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중-44360호

###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속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속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속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서정한의원 대표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정한의원  
seojung.com

소아비만, 성조속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분당선 신정동역 2번출구에서 약 60m / 리마더 서울호텔 맞은편